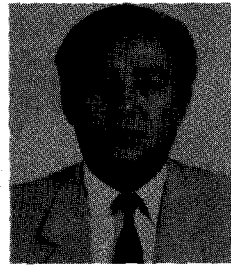


논단

건축설비기술인에 대한 당부



서재석 <수원전문대학 건축설비과 교수>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 대학으로서는 새로운 신입생을 맞이하여 희망과 기대에 찬 첫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다.

신입생을 맞이하는 첫강의.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강단에 서서 호기심과 기대에 차 있는 신입생을 쭉 휘둘러본다. 그리고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연다.

“본 건축설비과에 입학하게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또한 여러분과의 만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 후, 건축설비과의 교육내용과 전망 그리고 본인이 맡고있는 강의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때 신입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의지와 결심을 엿보는 듯 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무엇인가?

밖으로는 자국이익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수입개방 압력을 받아, 산업 전문분야에서 몸살을 앓고 있고, 안으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사치와 낭비 속에서 편안한 생활과 소비생활에만 전념하여 국가의 장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미래 설비인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신입생들에게도 언급한 당부사항을 거듭 당부코자 한다.

첫번째로 설비인으로서 첫발을 들여놓은 것에 자 긍심을 갖고 뚝뚝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설비공업계는 제조업체와 달리 현장기술이 주축을 이루다보니 근무여건이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비인이 이루어놓은 성과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란 인위적인 보호능력 보다도 인간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해 집단군락을 이루며 축조물을 구축해놓은 주거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요즘 고층화, 대형화, 고급화되어가는 건축물의 요구에 따라 설비인들은 부적합한 입지조건 및 건축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 짧은 기간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조해내고 있다.

두번째로는 장인(匠人)이 되고자 함이 구국의 길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사대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길들여져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공론만 무성하였지 우리의 산업을 여기까지 주도하고 이끌어온 것은 바로 기술인의 역량임을 입지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나 필자는 기술인이 살아 숨쉬는 한은 낙관적이라 본다.

기술인이 되고자 함에는 조각가가 하나의 작품에 쏟는 심혈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설비기술자

“요즘 고층화, 대형화, 고급화되어가는 건축물의 요구에 따라 설비인들은 부적합한 입지조건 및 건축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 짧은 기간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조해내고 있다.”

가 되기 위하여 모든 정열과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실로 밝다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개척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언젠가 저 협회 회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 말씀이 “아직도 설비업계에는 자적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말씀은 설비업계에는 지금도 기술적으로 개발·발전 시켜야할 사항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 우리 설비업계의 기술도입선을 살펴보면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전되어 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설비기술은 높은 숙련도와 경험 없이는 개발·발전시키기 어려우며 외국기술 도입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국내설비 기준, 현존 공법들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 여건에 맞게 개량하여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산재된 기술적 문제는 여러분들의 개척정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운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적극 믿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비의 발전은 분명히 GNP에 비례한다.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 즉, 주거환경이다.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설비기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설비기술이란 전망이 있는 직종임을 확신하고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 등의 아주 열악한 현 상태를 극복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설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분명히 밝은 서광이 비추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산업 역군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여러분의 학문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